

과거사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

반갑습니다. 시절이 어수선하고 날이 추운데, 여러분들과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가지고 만나 뵙게 되니까 마음이 훨씬 안정이 됩니다.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많아도, 또 될 일은 되고 또 할 일은 하고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그런 위안이 됩니다.

오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님인 송 위원장이 그만두시고 안 위원장이 새로 오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. 또 국정원, 군, 경찰, 과거사위원회가 이제 일을 다 마무리 했는데, 정말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. 아주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

국가기관 스스로 과거사 정리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

외부위원회가 아니고, 그 기관 내부에서 스스로 결정하고, 또 이렇게 과거사 정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점에서 그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과거 권력기관, 지금 맡고 있는 기관의 책임자로서는 좀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, 결정도 해주시고 그동안 과정에 많이 협력을 해주셔서 제가 보기엔 대체로 무난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.

전체적으로 진실화해위, 또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, 그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통합이 되고, 혹시 미진한 것이 있으면 다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. 다만, 말하자면 평가를 받는 셈이 될 텐데, 대개 평가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동안 정말 수고들 많이 해주셨습니다.

감사드리고, 앞으로 남은 일들을 또 계속 간추려 가셔야 될 분들에게는 잘 부탁드립니다.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정부욕심으로서도 좀 더 많은 인력, 많은 예산을 보장을 해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뒷받침해 드려야 하는데 매사에 재원, 자원이라는 것은 항상 모자라게 마련이어서 충분한 뒷받침을 했는지 좀 걱정도 있습니다.

어려운 일이지만 시작한 일이고,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일

앞으로도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위원님들 수고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, 수고는 많고 또 결과는 만족할 만큼 얻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려운 일이지만 또 시작한 일이고,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마 위원님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
무척 힘든 일일 것 같아서 미리 감사드리고, 잘 부탁드립니다. 사실 검찰, 법원 쪽도 뭐가 있었으면, 어떻게 해 봤으면 하는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, 법원이라는 것은 성격상 국민들의 높은 신뢰가 필요한 기관이어서 외부에서 뭐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. 보기에 따라 내부에서 스스로 결정하고, 스스로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을 정리를 하면 저희 생각에는 신뢰가 오히려 더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, 또 막상 그 기관으로서 그렇게 생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

그런 점에서 조금 인식에서 차이들이 있겠습니까마는 법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거나 또 국민들이 여론으로 압력을 넣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다행히 우리 과거사위원회, 또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들을, 법원이 제도적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, 실질적으로 존중해주고 있어서 그 과정에서 법원에서 있었던 과거의 과오와 오류들이 시정돼 가는 그런 계기는 좀 되는 것 같습니다.

검찰 자체 과거사 정리 못한 것은 아쉬움

제도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그런 것이 앞으로도 계속 잘 존중되고 해서 적절한 그야말로 적절한 화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검찰은 대통령이 한번 명령을 할 만한 그 수준에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대통령과 대통령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이 5년 내내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.

대통령이 뭐 검찰에 대고 말하는 것이 계속 5년 내내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. 대선자금 같은 것은 대통령도 자유롭지 않았고요, 그밖에 여러 가지 혐의들은 그 뒤 뭐 혐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났지만, 그러나 이런 저런 의심을 받을 만한 일들이 우연이든 또 우리의 잘못이든 그런 것이 연속되어서 검찰조사를 죽 받는 입장이 되어있었습니다.

계속 조사를 받고 지금도 특검대상이 돼 있어서...(웃음). 하여튼 그런 문제를 대통령의 결단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기가 어려웠습니다. 검찰부분은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정리가 비교적 잘되고 검찰에서 처리했던 수사들에 대해서 대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처리를 다시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지간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. 자

발적인 정리가 아닌 점은 아쉬움이 있지만 전체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리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

국가가 유지해야할 정의의 기준, 사후에라도 바로잡아야

사실은 국가라는 것이 권력의 실체이지만 국민들은 도덕적 실체이기를 바랍니다. 적어도 국가가 유지해야 될 정의의 기준 같은 것은 사후적으로나마 여러분들이 좀 바로잡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납득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해 온 과정도 만족하지 못하지만 대개 이 과정에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

그래서 지난날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고 신뢰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국가를 우리가 세우고, 그런 정부가 이제 미래를 위해서 창조적인 활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, 그래서 국민들도 뭔가 높은 신뢰를 가지고 서로를 믿고 협력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가는데 과거 사정리, 진실화해위의 이 과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 또 그렇게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.

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, 또 잘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■ 마무리발언 요지

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, 과거사 정리 업무를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고 계속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. 다만 추진력과 의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위원 여러분들은 계획대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한편, 그 결과 또는 경과를 국민들께 잘 알림으로써 자연스럽게 국민여론이 뒷받침될 수

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우리의 과거사 정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. 과거에 대한 평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바뀔 수 있으나, 민주주의에 기초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 평가결과는 아주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
그간 수고해 주신 국방부·국정원·경찰청 과거사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역사를 새로 쓰는 일이었던 만큼 매우 보람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.